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미얀마] 외국인 투자 길 열린 미얀마, 투자 환경 급변...불확실성 사라져

지난 4월 2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승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 중단 혹은 해제에 대한 언급이 외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11일 미국 재무부의 행정규칙인 일반적인 허가(General License 16, 17)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얀마의 국방부와 비정부 무장 단체 혹은 이들이 소유하는 단체 등과의 금융거래를 제외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승인했다. 또한 위 제한 그룹과 관련된 투자를 제외한 미국인에 의한 신규 투자를 일반적으로 승인했다.

최근까지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힘들었던 이유는 서방에서의 경제 제재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이지 않은 미얀마 내 환경도 한 몫했다. 우선 충분하지 않은 토지 공급이 문제였다. 미얀마 부동산양도금지법상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미얀마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해 부동산을 임차할 수 없다...(중략)

유정훈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미얀마 사무소장

- [제870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